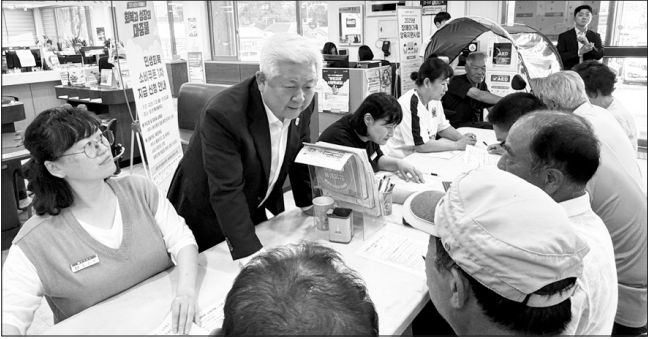


무주군, 소비쿠폰 지급률 94.67%

전북 1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 가동·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적극 행정 주효

무주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지난달 31일 기준 94.67%로 전북지역 1위(도내 평균 지급률 90.25%)를 달성했다. 군에 따르면 대상자 2만 2,885명 중 2만 1,476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액은 총 47억 원이다. 무주군은 지난달 초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TF팀을 꾸려 총괄지원, 행정지원(마을 1담당), 복지지원(대상자 DB 적합 여부 확인), 읍면 현장지원(현장 민원 대응), 기술지원(서비스 페이지 점검·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오프라인 방식을 확대해 선불카드의 물량(16,119개 총 지급수단의 71%)을 대폭 확대했으며 읍면에서는 사업 시행 전 마을회관과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찾아가는 신청



무주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지난달 31일 기준 94.67%로 전북지역 1위(도내 평균 지급률 90.25%)를 달성했다.

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신속, 정확, 친절하게 지급을 서둘렀던 게 가계경제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키우는 마중물이 됐다"라며 "이제 신속

한 사용으로 지역 상권에 더 큰 활력을 불고 올 수 있도록 소비를 독려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폭염 대비 축산농가 현장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 "피해 최소화 위한 현장 대응 최선"

최훈식 장수군수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일 산서면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최 군수는 양계 사육농가를 방문해 환풍기와 냉방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양관리 방법과 농가의 건의 사항을 직접 살폈다. 장수군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축사 환풍기 30대를 지원했으며

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가축 사육환경 개선 △중형관정 지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방송,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사료 급여 시간 조절, 충분한 음수 공급, 환기·냉방시설 점검 등 실질 중심의 사양관리 요령을 집중 안내하고 재해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농가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기후 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 예산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군에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재해보험 농가 전 중심의 사양관리 요령을 집중 안내하고 재해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농가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기후 변화로 폭염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고품질 수박 생산 주력... 황인홍 군수, 선별장 찾아 점검 나서

무주군이 지난달 21일부터 수박 수매를 시작한 가운데 황인홍 군수가 이달 1일 안성면 친환경유통센터를 찾아 현장 상황을 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무주군은 이달 중순까지 수박 수매와 함께 선별장 점검, 농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지원 정책 추진은 물론, 고품질 수박 출하 및 농가소득 증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안성면 친환경유통사업단과 설립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서 선별 및 수매를 진행 중이며 지역 내 수박 재배 농가는 2024년 농업경영체 기준, 109농가 44ha이다. 이들 농가에서 생산하는 '흑미'와 '블랙위너' 품종은 과피가 검은색에 가깝

고 진한 호피 무늬가 새겨진 대과종으로, 껍질이 얇고 단단하며 육질이 아삭하고 당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전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 무주군 대표 농작물로서 수박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모두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마음으로 고품질 수박 출하에 힘써 달라"며 "행정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박이 고령지 지역의 기후 특성을 활용한 프리미엄 여름 수박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주민문화공간' 재탄생

'장수작은도서관' 장수를 LH푸른마을 아파트 단지 내로 이전

장수군은 군청에 위치했던 장수작은도서관을 장수를 LH푸른마을(장수를 신천로 96)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연면적 380.42㎡ 규모로 이전 재개관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열람석 7석과 총 1만1,916권의 도서를 갖추어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은 물론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휴관이다. 특히 이번 이전 및 재개관을 기념해 도서관에 새로 가입하는 회원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전기념 회원가입 이벤트' 행사도 8일까지 진행하며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장수작은도서관 이전으로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군민들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는 군립도서관이 있는 장계면을 제외한 장수를 등 6개 읍면에 총 6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장수군은 도서관 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운영위원회 지원 등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민의 장' 후보자 추천 접수

진안군은 2025년 진안군민의 장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군민의 장은 대장, 문화장, 공익장, 산업군로장, 애환장, 효행장, 체육장 등 7개 부문에서 1명씩 선발한다. 추천대상은 진안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다. 자격 기준은 △군민의 장 공표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군 거주자, △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를 두고 있는 사람, △공고일 기준 군 관내 직장(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진안군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며, 기관사회단체장, 읍, 면장, 향우회

회장 등의 추천이 필요하다. 접수 기간은 8월 29일까지로 추천서, 공직내용기록서, 공적요약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컬러사진, 기타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진안군청 2층 행정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9월 중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발한다. 군은 제89주년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에게 군민의 장증 및 메달을 수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소방서, "벌 쏘임 사고 주의하세요"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최근 폭염일수 증가로 말벌 등 벌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위험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벌 쏘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벌 쏘임 위험지수 프로그램'은 벌 쏘임으로 인한 구조구급 활동 건수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산정, 군민에게 선제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시스템이다. 이 지수는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벌 쏘임 환자 이송이 가장 많았던 주간(2022년 8월 22일~8월 28일, 일평균 107건) 대비 해당 주간 이송 건수 비율로 산정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벌 쏘임 사고 예방

을 위해 향수, 화장품 등 벌을 자극하는 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팔다리 노출이 적은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벌집을 발견하면 자세를 낮춰 천천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심한 부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신속히 제거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찜질을 해주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무주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평생학습도시 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 무주군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래 2021년 무주군평생교육육원을 개원했으며 이듬해에는 누리집 구축을 마쳤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상도 수상(2022)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군민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인성과정(초등)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군은 올해 '지역과 함께, 누구나 언제나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무주'를 비전으로 하는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기실현 학습공동체, 일자리 창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우수학습도시' 선정

진안군은 지난 1일 교육부가 주관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전국 46개 군 단위 평생학습도시 중 '우수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학습도시는 전체 평가대상 중 상위 10%에 들어야 하며 차기 재지정 평가를 면제받는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4년이 경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생학습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추진체계, 사업운영, 성과 등 3개 영역에서 10개 평가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진안군은 2001년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진행과 부서간 협업을 통한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 성과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